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2호 【루체 제25495호】주제 105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열어주신 최후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자

혁명의 광풍을 맞받아치고 최후승리의
명마루를 향하여 질풍노도처럼 내달리는
사회주의조선의 만리마가장이 세계를 경탄
시키고있는 오늘 우리의 진지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사무치는 그리움
을 안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경건
히 추모하고있다. 남대저녁들과 해의종포
를,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민족사주위업과
사회주의위업, 세계사주위업을 줄기차게
이끄시고 오늘도 승리로 고무해주시는
불세출의 위인 김정일동지께 삼가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다.

지난 5년간은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힘차게 전진하며 승리하여온 혼연일체의
5년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장군님의 혁명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을 만방에 과시하여온
빛나는 계승의 5년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
앞에 강성민영의 찬란한 새시대를 펼쳐주
시고 최후공적전으로 힘있게 떠밀어주시는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총지휘 전사, 제자답게 불굴의
혁명신념과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수놓아온 일꾼
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년학생
들이 길새우의 대양상을 승염의 우리드러
총장의 명세를 더욱 굳게 다지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찬 투쟁성과를
추하여주시고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모든
것이 흥하는 백두산대국의 무궁한 번영을
추복해주시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
사상과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
하며 끝없이 빛내어나갈것입니다.》

조국과 혁명의 역사는 수령의 역사이다.
나라의 부강발전도, 인민의 행복도 수령의
령도밑에 마련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
진전도 수령의 업적에 의하여 담보된다.

지난 5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쌓아올리신 업적이
얼마나 고귀한것인가를 천만사람 모두가
심장깊이 절감한 잊을수 없는 나날이다.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
령도도 혁명의 운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
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시었다. 최세의 선군명령의
혁명명령은 매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숭고한
인생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상상을 초월하
는 힘난한 생생의 길을 제시시며 사회주의강
국건설의 제일 중대하고 제일 어려운 역사
적과제를 당대에 빛나게 수행하시며
백두산대국의 역만년번영을 담보해주시는
가장 고결한 애국의 한생이다.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야전복을 벗지 못하시고
조국과 민족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기
시며 초인간적인 의지와 정력으로 불멸
주아의 현지도강행군장정을 이어오신
어버이장군님의 희생적인 애국헌신과 혁명
시간은 원만전사, 제자들의 심장을 불타는
애국열, 혁명열로 끓게 하고있다.

지난 5년은 시련의 엄혹성과 투쟁의 간
고성, 이룩한 승리의 크기와 용무성에 있어
는 몇십몇백년 맛깔이었다. 우리 당과 인민
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에 토대
하여 과감한 총공작전을 벌려 나라의 전략
적지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창조해나
가는 눈부신 번영의 시대를 연아왔다. 오늘
에 와서 우리는 가지고있을것은 다 가지고
있고 부러울것이 하나도 없다. 정의도 우리
편이고 시간도 우리 편이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도 확정적이다.

지난 5년간 이룩된 거대한 성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유훈은 주체
혁명완성을 위한 백과사전적인 지침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해인의 예지로
생전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분과 단위를
다루는 투쟁과정과 그 수행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사상과 로선, 전략
술적문제에 있어서 단 한편의 미흡점도 없이
원벽하게 행행하시고 최후승리의 끝바라지
투쟁길을 밝혀주시는 여기에 인류사의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이
있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존
해계실 때에도 장군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을
절감하였지만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이후에
더욱 심장깊이 새기고있다.

어느 길로 나갈것인가, 이것은 역사의
피물인 자본주의의 림종이 눈앞의 현실로
바뀌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최후방어에 의해
세계도처에서 복잡다단한 사태와 비극들이
데칼같이 벌어지고있는 현시국 부강민족의
진로를 여라게 찾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초비의 문제이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고귀한 투쟁경험은 우리 당과
인민이 순간의 파랑우람도 모르고 배심은
흔히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역세계 전진할수 있게 한 전유적기초였다.
부강조국건설사에 튼튼한 최의의 역경속
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최상의 승리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을것
이다. 세상은 우리 조국처럼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고 군대와 인민, 청년들이
자기 령도자에게 무한히 총적하며 당의
유일적령도체제가 온전히 선 나라는 없다.

지난 5년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린
하신 우리 혁명의 주체가 얼마나 공고하고
위력한가를 남김없이 실증해온 나날이었
었고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아는것, 이것
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난 기간 수령의
유관관철전을 통하여 써출될이 간직된
절대불변의 신념이다.

지난 5년간의 빛나는 성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품들어 키우신 혁명의
강력한 주체의 승리이다.
혁명의 주체는 곧 수령, 당, 대중의 통일
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양양한
전도를 위하여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은

완성하는 길에서 영도자와 인민이 일심
일체로 이룬 천민의 대오가 있는 한 우리
혁명에는 앞으로도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없고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지난 5년간 이룩된 기적적성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시는 무진막강한
군사경제적토대와 잠재력의 승리이다.
오늘 세계의 모든 시대의 상상공을 향해
투쟁해 오고있는 사회주의조선에 집중
되고있다. 세상이들은 현대미공의 제도와
입박을 보란듯이 쳐갈기며 주체의 위상강
국, 자위의 핵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경제전면의 비약적인 상승이 지속적인 발전
으로 이어지고있으며 최상의 문명이 평범한
인민들의것으로 꽃피는 우리 조국을 선양
의 눈길로 주시하고있다. 주체조선의 눈부신
비약은 결코 기회가 좋거나 운이 좋아서
가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만세기
상 축적하여온 강대한 국력의 폭발이다.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힘을 키우는것보
다 더 큰 애국은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구한 혁명령도사는 외세에 굴종하여 얻는
비굴하고 일시적인 《번영》을 배격하고 조국
의 자주적존엄과 후손대대의 행복을 영원히

담보하는 지역자강의 극력건설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숭고한 애국의 령도였다.
위대한 선군명령의 강철의 의지와 헌명한
령도밑에 핵보유의 민족사적대업이 성취되
고 지시경제시대가 열렸으며 강력한 인제
대군이 육성되고 세계를 앞서나가는 거대한
본보기들과 투쟁경험이 창조되었다. 최근년
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는 국
토에 달하였으나 지평적이고 현대적인 군사
경제적토대와 잠재력에 의거하여 세계를 향
해 돌진해나가는 주체조선의 특종같은 기상
을 뽐낼수도 축적할수도 없었다. 지역자강
의 힘난한 길을 과감히 선택하고 뜻이
헤치시어 강성민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시
실세위인의 업적의 위대성과 생활력은 세월
이 흐를수록 더욱더 부각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쌓으신 업적중의 업적
은 영도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것
이다. 태양의 위업은 태양의 위인적공포와
자질을 지닌 절충한 령도자만이 완성할수
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전군에서의
특기할 대승리와 성과들은 또 한분의
백두산선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는 혁명을 개척
하고 이끌어온 수령을 천세만세 높이 우리
모시고 수령이 가리킨 길을 따라 끝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신념과 의리의 강자들만
이 이룩할수 있는 가장 값높은 진취품이
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시는 승리의 한길로 우리
당과 인민을 확신있게 이끄는 전유적기
초이다. 지난 5년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르고 영원히 높이 받들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이 숭고한 높이에서 실현되어
온 수령명령의 성스러운 령도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사의 보진 광풍앞에서도 끄떡함이 없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역세
계 나아가고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
가항력의 위력인 일심단결이 천백배로 다
져지고있다.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리러보는 사회주의
강대국,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빛내이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찬란한 포부이고 평생의
위업이었다. 어버이장군님의 념원을 하루빨리
빛나게 실현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결사의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리해인의
총합력과 정력적인 령도는 온갖 적대세력들
의 발악과 도전을 짓부시고 주체조선의
자주적존엄과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펼쳐
나가는 백승의 힘이며 만리마의 기상으로
황후로운 미래의 모든것을 최대의 속도로
앞당겨오는 대번혁, 대비약의 투쟁력이다.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봉투전에 의해
전쟁이라는 제양의 난파도속에서 인민의
안녕과 행복이 굳건히 수호되고 로동당시대
전화위부의 기적적승리들이 이룩되었으며
불멸한 생활을 창조하고 향유하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사회주의안세소리가 날로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지난 5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상의 령도자를 높이 모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창조하신 조선혁명의
백승의 역사와 전통은 끝없이 이어지리라는
신념을 더욱 역세계 간직하였다. 지금 미국
과 그 추종세력들은 그 무슨 《초강도제재》
를 떠벌고있지만 70여년전처럼 혁명색의
극악한 제재압박속에서 강해지고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인민을 절대로 놀래울수 없다.
총공적명령을 눈앞에 둔 적대세력들의 단발
마적발악은 오히려 최후승리를 앞당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총원한 기세와 총진군
속도를 더욱더 증대시키고있다.

전세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끝없이 총적
한 조선혁명가들의 고결한 품도와 본때를
더욱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장군님의 령도에서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
켜나가야 한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
업적을 절절히 옹호고수하며 모든 사업들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야 한다. 수령명령의
성스러운 역사를 유관관철전에서의 빛나는
승리로 지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주체혁명의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시며 원수님의 령도는
비약하는 조선의 힘이다. 전방,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방공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 자기 령도자를 따온 당과
군대와 인민보다 더 위력한 혁명의 주체는
없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 인민군관들과
근로자들은 총성과 의리로, 신념과 의지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고 원수님의 령도에
발길음을 맞추어나가는 참된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되어야 한다. 당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 우리 조국을 원후목적의
성세로 온전히 다져나가야 한다.

지역자강의 창조대전을 더욱 과감히
벌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
겨야 한다.
지역자강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원동력이며
최후승리의 열쇠이다.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 식의 투쟁방식과
창조방식으로 일파세운 주체의 사회주의의
완성까지를 자강력체위주의의 위력으로
이룩하여야 한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들
에서 지역자강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을
풀어주고 대혁신, 대비약의 보상을 편이
올려나감으로써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목표들을 앞당겨 정면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백전백승의
역사와 전통이 우리를 고무하고 위대한 당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가 천만군민을 최후
승리로 확신있게 이끌고있다.

모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붙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이
어린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완성을 위하여
더욱 투쟁해 싸워나가자.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민민이 우리라는 백두대양의 찬란한 빛받이여 민족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높이 펼쳐지고 자주통일을 위한 기록적전군이 힘차게 다그쳐지고있는 시기에 온 겨레는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5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고있습니다.

이날에 즈음하여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북의 권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총정의 한 마음을 담아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에 영원불후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재의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어주시고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다짐하는 경도의 인사를 삼가 올립니다.

하늘처럼 맑고 따르던 민민의 태양, 민족의 어머니를 너무도 뜻밖에 잃은 통탄에 가슴치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5년은 우리 겨레가 김정일장군님의 기록한 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절감한 성스러운 날이었으며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기 수평영생위업의 찬란한 세시대를 아로새겨온 각동적 인 시기였습니다.

인류의 심장속에 선군태양으로 빛나시는 김정일장군님의 한생은 천제적인 예지와 탁월한 명도로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의 방향타를 틀어쥐시고 민족자주위업,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혁명가, 절술한 정치가, 민족의 어머니의 기록한 한평생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인이 지닐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헌동으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을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밀붙여 하시었으며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 공화국을 주축하신 당과 군대,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주체혁명위업 실패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시었습니다.

평생봉제의 선군정치로 김정일주의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공화국을 불멸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일터세우신 절세의 애국자의 송고한 영광과 애국헌신은 우리 조국과 민족사에 찬연히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일된 조국을 겨레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온갖 고고와 실험을 버치시며 6.15평화선언을 펼쳐주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주시고 불멸의 업적은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어 거룩적 통일운동의 무궁한 원동력으로 되었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의하여 굳건히 계승되었고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력사는 세인을 경탄시키며 대를 이어 도도히 흐르고있습니다.

승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하물도 감복할 지극한 총정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수평영생의 최고성지로 더욱 숭엄하게 꾸리시고 어머니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수반, 공화국의 국방위원장 위임장으로도 영연히 높이 모시어 온 민족이 태양의 추복속에 자주와 통일, 강성과 번영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여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주체조선의 영원한 지도적 지도체로, 민족자주위업실패의 불멸의 기치로 빛내어주시었으며 우리 겨레와 자주시대가 나아갈 영원한 두텁고 승리의 좌표본을 제시해주셨으며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애국인민중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을 마음속에서 모시고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당담아 헤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비범출중한 명도로 의의 공화국은 지난 5년간 천지개벽, 천하위공의 승전고를 높이 울리며 주체강국건설의 장엄한 최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민중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을 틀어쥐시고 혁명적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경이적인 대변혁, 대전변을 안아오시

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손길아래 백두의 광바람정신,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 높이 발달되고 만리마추드상조의 열풍이 세차게 나래쳐 공화국은 국제사회가 경탄하여마지 않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고있습니다.

문무물 결비하신 절세의 위인을 모시기 온 선군조선은 그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으로 솟아올라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을 무산케 불타고 공포에 몰아넣고있습니다.

사상과 명도에서 체이시고 용모와 인격에서도 최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도 높이 모신 끝없는 영예와 공시를 안고 공화국의 천만군인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세인을 놀라우는 영웅적신화를 창조해나가는 용용한 기상과 경이적인 파국은 우리 남녘민중의 심장을 두번히 격동시키고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운용을 거어어 관철할시 역력 불멸의 신념과 의지,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시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언뜻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자강심을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선으로 전행해주시고 대원수님들께서 밝혀주시는 조국통일3대 전략을 철저히 관철하여 통일위업을 완수할 새로운 전로와 두정방략을 펼쳐주시는 온 겨레의 가슴마디에 통일강국의 패일을 대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준 특기한 민족사적사면입니다.

정녕 천제적인 예지와 비범한 명도, 고대한 덕망으로 주체혁명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시는 불세출의 선군혁명가이시며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최고명도로 높이 모신것은 온 겨레가 받아안은 최상 최대의 행운이며 무상의 영광입니다.

지금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대를 이어 백두의 찬송위업을 모신 한없는 민족적자강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향도따라 조국통일위업실패를 위해 일로 매진할 불같은 정에에 넘쳐있습니다.

우리 반제민전 선진들과 각계 애국인민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제만세 높이 모시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우리들모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무궁도록 빛내어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반제민전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명도를 총칭하게 말하어나가는 불멸의 전위대로로 반석같이 다져나간 남녘겨레의 가슴마디에 백두산집세위인들모두에 대한 열화와 같은 용모심이 더욱 깊이 간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평범한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를 힘있게 다그쳐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적역량을 벽면으로 강화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자주통일사상과 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진중을 힘있게 불리어나가겠습니다.

당면하여 내의반공일색의 북진정전도발과 동족대결책동, 비련한 반공화국(인민)보국소동들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가며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최후말야하는 보수침권패당을 매정하게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져올려겠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의 찬란한 빛받이로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시기어 자주, 민주, 통일운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필승불패입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북의 권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넉넉을 담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제105(2016)년 12월 17일 서 울

주체위업의 위대한 명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하늘처럼 맑고 따르던 민족의 위대한 명도자이신 김정일대원수님과 피눈물속에 영결한 그날로부터 5년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세월은 온 겨레와 더불어 총련의 전제 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이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얼마나 거창하고 고귀한것인가를 심장깊이 되새기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따라 어머니장군님의 유혼관화에 순결한 향심을 버치온 나라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인자하신 태양상을 우리르느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은 탁월한 명도와 은엄결한 사랑으로 재일조선인민운동을 걸음뜰을 이끌어주시던 잊지 못할 나날들이 가슴뜨겁게 떠올라 어머니장군님께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후모의 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머니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기원의 인사를 드리며 장군님께서 맡고이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주체위업을 최후승리여로 끝마치고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의 열화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비범하고 세련된 명도로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혁명적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으시고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불멸의 군사강국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력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술한 수평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송고한 애록애근으로 온 겨레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이끄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인류의 자주와 위업을 불멸의 공헌을 하신 세계정치의 천로이십니다.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은 자주의 핵강국, 주체의 위성강국으로 우뚝 솟아 만리마의 속도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어나가며 만년대결전에서 편편선승하는 조국의 장엄한 현실을 보면서 어머니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나라와 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역력같이 다지신 백승의 기치이며 만능의 보검이라하는것을 절감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면 날날을 내다보시고 풀들여 마련해주신 과학기술인재의 대군과 주체공업, 자립적인 국방공업이 있기에 조국방어를 민족사적인 특대사면들이 한이여 펼쳐지고 10년을 1년으로 추뽏잡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최상의 속도로 앞당기는 영웅신화, 천하위공의 거적적승리가 이룩되었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어머니수평님께서 무어주시 총련을 애록애근의 선각자, 애국총정의 모범, 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로 키워주신 탁월한 명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의 수호자이십니다.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때 시기, 때 단계마다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총련을 사상과 신념이 투철한 일심단결의 태도로 다져주시고 재일동포들을 친혈육처럼 자애로운 환심을 포근히 안아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내려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평님을 잃고 피눈물속에 맞이한 1995년 5월 24일에 역사적인 서한으로 애록애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세워주시었으며 1999년 4월 20일에는 강령적고교로 세 세계 총련사업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하겠다싶다고 하시면서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여야 했던 그 준엄한 나날에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끊임없이 보내주시었으며 조선대학교와 금강산거꾸만에 막대한 배려금을 안겨주시고 동포들이 자연재해를 입을 때마다 사랑의 위문헌금과 겨레의 위문금을 보내주시어 어머니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우리들은 세월이 흐르고흘러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장군님의 유혼관화에 패진해온 지난 5년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어머니장군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은 천제만세 끝없이 빛을 뿌리며 주체위업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전력을 심장깊이 간직한 영광의 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머니장군님께서 생전에 들려주신 사랑 그대로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 은홍을 다 배풀어주시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반미대결전을 전에서 명도하시는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총련건설 60돐에 즈음하여 친히 보내주신 재일조선인운동의 불멸의 대강인 장명적서한을 비롯한 말씀들과 추모본, 축전들로 새로운 주체100년대 총련사업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재일동포들은 두리은 정을 안고 사는 하나의 철육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김일성주석님의장년동명 제9차대회에 총련일꾼들과 조청일꾼들을 불러주시어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친근같이 거중한 말씀을 주시었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6차대회에 참가한 대외선언위원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해같은 은정을 우리들은 세세년년 영연히 전해나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5돐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는 전체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수평님의 탄생 105돐과 어머니장군님의 탄생 75돐, 경애하는 원수님을 주체위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5돐이 되는 뜻깊은 새해에 위대한 수평님들께서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강령적고교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겨 열어나갈 불같은 경리로 활이겨지고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데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연히 높이 모시고 수평님들의 총련건설사상과 불멸의 명도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총련의 모든 사업을 위대한 수평님들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는데로 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조직안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유일적명도 체계를 보다 철저히 세우며 총련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물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속에 총련의 힘이 있고 새로운 전성기도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총련을 백두산집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강위력한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평님들의 교시를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늘 동포들속에 들어가 총련조직을 동포군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힘있는 애국조직으로 꾸리며 재일동포들의 민족권리와 리익,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조국의 부강발전과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하며 일본인민들과의 내외활동을 능동적으로 벌임으로써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애국적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의 간결한 소망은 조선혁명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운명이며 총련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우리들은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총련애국위업의 전진과 재일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목척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105(2016)년 12월 17일 일본 도쿄

우리 민족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백두대양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동포들님은 민족최대의 속로의 날인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강성부흥,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불멸불후의 로고와 실험을 정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어머니장군님께 삼가 다짐하는 경도와 영생기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멀리 이역방에서 우리모두의 운명으로, 하늘로 맑고 살던 어머니장군님을 너무도 찬탄듯하며, 너무도 감사지 않고 뽏뽏 리치던 그대로부터 흘러온 5년세월 우리들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애로우신분들 민족의 명수로, 어머니로 모시고 살며 투쟁하여왔는가를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하였으며 또 한곳의 천천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영연히 우리 재의 동포들과 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 불멸의 전력을 역력같이 새기었습니다.

혁명의 사상 백두산에서 백색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장구한 기간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명도하시어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에 영원불멸한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사회주의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반제민족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인민들사이의 친선전결을 위하여 정력적인 사상 리론헌동과 내외활동을 벌리시었음.우리나라의 국제적지위와 권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었으며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어버이정신으로 언제나 재중조선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으며 우리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때에도 높이 평가해 주시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우시어보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계시어 저희들은 산술고 불상은 이국 땅에서 살아도 언제나 뿌려올라 의의로운 모르고 어깨를 툭 버고 존엄높은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나갈수 있었습니다.

빛과 열로 찬란한 백일을 안겨주시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지금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동포들님은 동서고구 각 어느 민족도 누르부치 못할 수평, 장군, 위인통을 대를 이어 누려가는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남다른 특전과 행운, 크나큰 공의와 자부심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해외동포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반드시 펼쳐나갈 굳센 의지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들은 백두산천천천위인들의 주체적혁명동무공화국사상을 높이 받들고 김정일애국주의를 실행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조국을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터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평범한 재중조선인들중 조직의 두리에 군계 쑤어세워 통일운동의 위대한 열을 내어주시고 있고 총련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애국의 태도로 더욱 든든히 무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투철한 민족자주의 림향을 가지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주의적과 강정을 끝장내고 미일제국주의자를 남조선정권자들에 남로 로골화되는 북침전쟁책동을 저지과 단시시키기 위한 반제민전, 평화수호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져올리며 조선반도의 평화로 보장하고 민족의 통일강국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따르던 그 마음 그대로 변함없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어머니로 높이 받들어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실현으로 받들어나가는 원연 애국동포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심장은 비록 고통을 겪었으나 대원수님의 기록한 찬함과 자애로운 은상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연히 간직되어있을것이며 어머니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사에 깊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영연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겨레의 운명과 행복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은 모든 재중동포들의 간절한 소망이며 넘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전체 일꾼들과 재중조선인들의 총정의 한마음을 담아 선군조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제105(2016)년 12월 17일 중국 심양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의 김정일 동지의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안력에 높이 보내어왔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하시리라》라는 글말이 적여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5일 꽃바구니가 전성되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의 김정일 동지의 외국의 단체, 인사들과 해외연교자 가족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안력에 높이 보내어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6일 꽃바구니들이 전성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8일 꽃바구니들이 전성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안력에 높이 보내어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9일 꽃바구니들이 전성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20일 꽃바구니들이 전성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21일 꽃바구니들이 전성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22일 꽃바구니들이 전성되었다.

서사시

태양의력사는 무궁하리라

박정철, 장명길

흘러온 만민역사에
5년은 너무도 짧은 한순간
리나 세월의 길이로만 갚을 없는
5년을 우리 살았다
역사의 무게로만 안을 수 있는
위대한 5년을 우리 세웠다

가장 크나큰 상심의 바다에서
가장 눈부신 승리의 절정에
올라선
기적의 5년
이 나라 5천년이 애리께 갈망하던
강국과 번영의 꿈이
현실로 꽃피고 열매 맺은 전설의
5년

어버이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가장 빛나는 영웅으로 수놓으며
장군님과 함께 걸은 5년이여
원수님 따라 북돋워 마련은 5년이여

오, 해와 달이 뜨고 저서 호른
세월이었던가
그리움의 힘으로 격류해온
조선의 이 5년에서 세계는 보리파
태양의 력사로 강대하고
태양의 영웅으로 불멸할
이 조선의 무진한 국력을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
무궁할
태양조선의 창상한 미래를

1

눈이 내린다
그리움에 물러는 마음과 마음들이
달려와 안기는 혁명의 성지
백두봉정의 위대한 생이 시작된
백제산전장에

윤기는 자욱자욱
혈전혈투의 만고의 황쟁사자
뜨거이 새겨진 력사의 땅 삼지연
눈덮은 이강술도
뜻 잊을 추억을 부르는 유서깊은
고향군에
아진복사작 날리며 서계시는
우리 장군님

금시 아진사에서
고향의 풍구에 내려서실듯
마도쳐오는 백두밀림 바라보시며
고향집대문을 열고 들어서시는것만
같다 하시던
뜻 잊을 그날처럼

조선혁명의 첫 책지가 새겨진
백두대지에 거친히 서서이
삼천리강토를 걸어보시며
환히 웃으시는 장군님 아진복에
삼가 내려앉는 백두의 하얀 눈

한평생 맞으신 온 눈물도 맞으
시며
세월의 눈비 고스란히 다 안아
봄꽃으로 피우시는듯
태양의 그 모습 경건히 우러드노
라니

올려오누나
장군님의 흉상을 바라보시며
절절히 보이시던 원수님의 그
말씀
- 눈이 내리는구만
장군님과 눈물속에 영결하던 날
에도
눈이 내렸지...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으시고
는발속에 오레도록 서계시는
원수님 마음속엔 어찌왔이까
우리 장군님 장일봉기군을 떠나
한평생 길고길오신
혁명의 생노살림의 눈보라같이

인생의 첫걸음도
흰눈덮인 백두전장에서 시작하신
장군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이어오신
길고길을 사생결단의 원한리

그 길엔 있었다
지쳐내리는 아진차를
함몰 내리고 밀고 오르신 장군님
이데로 가면 병사들이 출했다고
진흙무성이신발을 눈으로 비벼
달으시던
천바탕부는 전선의 그 아침도

그 길엔 있었다
엄동에도 한불에 발을 담그시고
인독을 뿜으시던 뜻 잊을 사연도
커붓는 눈발속을 헤치며
수백리를 달려온 아진차
얼어붙어 열리지 않는 차문을
부여잡고
병사를 뚫던 그 눈물도

잊을수 없이라
민족의 어버이의 안녕 바라는
속원의 꽃글썩
이 땅 이 행성에 굽어지던
2월의 그 아침을

거리와 마을 집집마다
명필의 기쁨으로 흥성하는데

우리 장군님만은
논보라강행군길에서
생신날아침을 맞으셨으니

올며이며 인사올리는 일꾼들에게
나직이 하시는 말씀
- 내제겐 아진식이 제일입니다
아진식생활은 내 몸에 꼭 배었
습니다

볼어보자 세상사람들이여
인간이 한생을 바랄만 한지에서
아진생활로 이어올수 있는가
누구보다 생활을 사랑하신분이었
전만
이 땅을 떠난 자신의 집
인민을 떠난 자신의 식솔
순간도 생각해본적 없으셨거니

동려오는 전선산밭들에
올날리며 내리는 눈송이 눈송이
그이 마음속에 불덩이로 남아드는
2월의 눈송이 눈송이...

정녕 백두의 뿔눈속에 오시어
이 땅의 한눈을 다 녹이시려
그이는 그처럼 뜨거운 불이 되셨
인가

시편이 모질수록 역풍이 세할수록
더 활활 마오르는 심장의 불을
안으시고
낮에 밤을 이어가신 강행군길
모닥불기에서 풍풍 언 재기발을
손에 드시고
언발에는 노래가 반주하고 하시며
적기가를 부르시던 백제산행군길

덤고 또 덩이신 전선산밭의 즐거
즐거
높은 산 험한 명 가파른 고지
그러나 그보다 넘기 힘들었던
마음의 고개고개는 또 얼마

고난과 시련이 겹쌓이면 어느날
총알이나 사망이나
일체 내릴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
에서
나래의 국방력을 다질
중대문간에 수포하시며
허리띠를 조일 인민들생각에
피눈물을 삼키시던 장군님

불꺼진 거리와 마을
죽고못을 마주한 자식들모습
안으신
스런 한가슴에
역사의 모진 광풍 다 맞으시며
장군님 이어오신 선군의 길이어

희망안고 나아가자 인민이여
한때의 배고픔, 일시적인 고생보다
더 큰 고통은 제국주의노예로
사지는
죽기보다 못한 그 치욕은
순간도 참아낼수 없는것
세월가도 잊을수 없는것

사랑하는 나의 인민
그 누구도 못 다치게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게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을 지니게
하리라
결만 번번이 는 일시적인 변화가거
아닌
영원한 사회주의변화가를 안겨
주리라
승리의 그날을 인민이여 기다려
다오

조국과 인민위해 희생도 각오
하시고
단 한시도 땀쳐산신들며 투신
사이없이
풍찬로속하시며 집푹같이 달려
오신
강구레로의 길

한치런치 허리치는 시련의 장실
키를 넘는 력사의 《눈장벽》을
다 녹이며
한몸의 열과 애를 땀그리 다
바치신 그 길에서
단 하루도 벗지 않았신 아진복
그 색바랜 옷자락속엔
인민! 우리가 안겨살았거니

그에서 12월이 오고
강산에 눈이 내리면
머더우 우리 가슴 파고드는
이 여름

어이 일오라
복설이 내리쌓이는 이 땅에 끝없이
이 흐르던
피눈물의 바다
운명의 가동줄 잃은 인민이
장군님을 애리께 불러 왔던 비애
의 바다

장군님 탄생 70돐을 맞는 아침엔
은 나라 가정에 밝게 모시자던
장군님의 태양살애
추모의 꽃을 놓아야 했던 가슴
맺는 아픔이여

자신을 위해서는

2

동상 하나 남기지 않은신분
한생을 바쳐 안아올리신 장군에
자신의것으로 남기신것은
숨이 다 잦아든 단벌아진복뿐

그 옷을 갈아입으면
인민에 대한 사랑이 식을거봐
한평생 한순간의 휴식도 모르시고
마지막순간까지 벗지 못하셨던가

그처럼 불같이 사시느라
위대한 심장의 마지막박동까지
조국위해 인민위해 장그리 바치
시느라
은 나라 인민, 은 세계 인류가
그처럼 고대하던
회고록을 쓰실 사이도 없으셨으니
그래서 더더욱 용어려진 인민의
아픔이여

그 어느 분필가가
그 어느 세필자가
다 전할수 있오라
너무나 비범한 생애의
그 투수한 만단사연의 갈기갈기볼

취이 번질수 있오라
펼치는 첫 페이지는 있어도
덜어야 할 마지막페이지는 없는
위대한 그 한평

인민은 심장으로 읽고 또 읽노라
장군님의 뜨거운 열과 정이 스며
있는
이 나라 산야와 굽이굽이 길들
에서
강대 한 위상 펼쳐는 내 조국의
모습에서

보노라
수소탄시험의 대상품으로
력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우리 조국의 눈부신 위용에서
백두산대국의 영웅으로
천연히 빛나시는 태양의 그
모습을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생애의 마지막문간에
활달한 걸음으로 수포하시던
뜻 잊을 그 시각도
바로 예서 시르고있거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태양의 미소 더 환히 빛나게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흘러온 5년의 대명사원뜻
단 하루도 풀리지 않은 남 있었
던가
인민들의 그리움 다 안고 걸으
시는
우리 원수님 자욱자욱우에서
불덩이처럼 미쳐나오던 심장의
도로여

누구보다 인장에 푸르신
우리 장군님의 가장 큰 기쁨과
슬픔은
무엇이었거나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한생의 그 엄격 함치면 인민뿐
일음
제일로 잘 아시는 우리 원수님

추억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 열어
시노라
뜻 잊을 12월의 그날
우리 원수님 오르신
어머이의 채취 력적인 인민행
렬차에

금시라도 저 옷걸이에서
아진복옷을 벗겨입으시고
사, 동무들 오날도 강행군이요
하시며
시름더 문을 열고 나서실듯

저 하늘 해와 달도 따르지 못하던
불철주야 그 낮과 밤들을 안고
지금도 가고있는 철차의 시계
그 초침소리 그대로
생생히 살아 율하는
장군님의 심장의 박동소린듯

생애의 마지막문간에
활달한 걸음으로 수포하시던
뜻 잊을 그 시각도
바로 예서 시르고있거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조국과 인민위한 사랑을
두중기 꿰고살아 힘없이 달려오신
장군님 불멸의 한생을 안아보시는
원수님의 심중에 또렷이 안겨드는
아이들의 글말이 있었으니

뜨겁게 말씀하신 원수님

커울리던 웃음꽃이요
얼얼한 글씨라
호뜻하고 가슴버린 불고기신 바라
보시며
거름거름 질질히 보이신다
- 장군님께서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정녕 그것은
기쁨속의 아픔이었다
그처럼 넘친하시던 인민들의 행복
한 모습
어머이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행복이 커갈수록 쌓이는 그 아픔
크나큰 분발로 바꾸시며
좁은 길에 바귀가신 그 길엔
있리라
그처럼 어쩔던 고난의 나날에도
우리 장군님 지켜주시
후대사랑의 정물기 사랑의 풍우유
차도

그리움이 사무치는 12월
장군님의 3년상을 이룬 앞둔 그날
평양아편이시료불꽃장울 뿜으신
원수님

인민군대의 징중수송전투에 의해
심지어 벌인 풍마대일에서
뜨거이 하시던 그날의 그 말씀

- 아이들이 먹는 풍우유에는
장군님의 는분겨는 력사가
깃들여있습다
원료가 떨어지간다는 보고를
받고
금수산태양군전에 계시는
장군님을 뵈을 면목이 없었
는데
이제는 됐습다

아, 뜨겁게 이어지는 장군님 사랑
금수산하늘가에 울려가
아이들의 정열은 웃음소리
《세상에 부림없이라》의 목메인
노래소리

눈부시어라
금수산 그 기슭에 트랙을 있고
일떠서는 련명거리
저 멀리 정일봉기군엔
만복의 꿈이 꽃피어나는 삼지연
장군님의 비상을 안고 좇구시는
물명강구이여
너의 같은 그 어디나

이 나라 북변전리 두만강물결우에
그림처럼 비껴있거니
복눈이 내리는 창구마다
새집들이 기쁨넘친
전화리후의 새 거리 새 마을들이

꽃밭의 끈풀에
엄축한 새나들이 불어다친 그 시각
북변땅을 그려안은
우리 원수님 마음을
그리도 아프게 어이던 인민의
모습

시련의 눈보라속에서
우리 장군님
아진복자락에 싸안아 지켜주시
인민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죽처럼
안고
일편단심 우리 당만 따르던 인민

그러온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안은 인민의 그 모습에
단 한결기 그늘도 비껴선 인티브
그 어떤 세양도 눈보라도
인민의 삶을 해치지도 열구지도
망하려라

장군님을 지키듯
장군님을 보시듯
이 한몸 내대여 찬눈비 다 막아
주리라

꽃밭의 끈풀에
엄축한 새나들이 불어다친 그 시각
북변땅을 그려안은
우리 원수님 마음을
그리도 아프게 어이던 인민의
모습

꽃밭의 끈풀에
엄축한 새나들이 불어다친 그 시각
북변땅을 그려안은
우리 원수님 마음을
그리도 아프게 어이던 인민의
모습

꽃밭의 끈풀에
엄축한 새나들이 불어다친 그 시각
북변땅을 그려안은
우리 원수님 마음을
그리도 아프게 어이던 인민의
모습

꽃밭의 끈풀에
엄축한 새나들이 불어다친 그 시각
북변땅을 그려안은
우리 원수님 마음을
그리도 아프게 어이던 인민의
모습

꽃밭의 끈풀에
엄축한 새나들이 불어다친 그 시각
북변땅을 그려안은
우리 원수님 마음을
그리도 아프게 어이던 인민의
모습

꽃밭의 끈풀에
엄축한 새나들이 불어다친 그 시각
북변땅을 그려안은
우리 원수님 마음을
그리도 아프게 어이던 인민의
모습

꽃밭의 끈풀에
엄축한 새나들이 불어다친 그 시각
북변땅을 그려안은
우리 원수님 마음을
그리도 아프게 어이던 인민의
모습

꽃밭의 끈풀에
엄축한 새나들이 불어다친 그 시각
북변땅을 그려안은
우리 원수님 마음을
그리도 아프게 어이던 인민의
모습

꽃밭의 끈풀에
엄축한 새나들이 불어다친 그 시각
북변땅을 그려안은
우리 원수님 마음을
그리도 아프게 어이던 인민의
모습

꽃밭의 끈풀에
엄축한 새나들이 불어다친 그 시각
북변땅을 그려안은
우리 원수님 마음을
그리도 아프게 어이던 인민의
모습

지켜냈습다
인민들이 기뻐합니다
아이들도 로인들도 더 밝게
웃습니다
그러니 장군님, 마음을 놓으
십시오

오, 우리 장군님
조국땅 한울 북변마을 새집들이
웃음소리
려명거리한풍의 소식보다
더 기쁘게 들으시어라
꿈같은 신경의 바다에서
울고웃는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
더없는 행복속에 안아보시어라

한평생 안고 사신
인민의 소원 인민의 꿈이
백과로 주렁지는 이 강산
원수님과 운명의 철학을 있고
역천한길 통친 일심의 대오의
앞길에
눈부신 태양의 미소
축복의 해빛으로 뿌리시어라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정녕 지나온 5년만이라
이제 다가올 50년, 500년세월
에도
이 땅 이 하늘을 가득 채운 인민
사랑의 진실
눈부신 전변의 력사속에
가장 위대한 영웅의 배아리로
인민의 마음속에 울리고 울리리라
- 우리 장군님 보시면
얼마나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장군님과 함께 가시는 원수님

장군님 넘원을 풀쳐우는것이

